



경인지역본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무료 건강검진



불편한 몸과 마음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검진을 챙기기가 어렵다.
누군가의 관심이 없다면 그들의 건강권은 사회적 울타리 밖에서 소외될 것이다.
경인지역본부가 장애인 대상 무료 건강검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유다.

글·사진 북해용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사내기자

발달·뇌 병변 장애인 77명 대상 건강검진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건강진단팀은 10월 6일 수원시 곡반정동에 위치한 홍재장애인주간보호 시설에서 발달·뇌 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홍재(弘濟)라는 시설명은 애민 정신을 실천한 정조대왕의 호에서 따온 것으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뇌 병변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낮 동안 돌봄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영위를 돕고 있다.

경인지역본부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원시 소재 장애인시설과 MOU를 맺고 매

년 무료 방문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의 건강검진은 올해로 두 번째다. 이날 검진은 오전 8시 반부터 진행되었는데, 검진 전부터 수많은 사회재활교사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검진이 시작되자 사회재활교사와 함께 장애인들이 속속 모였다. 순간 잠잠했던 곳은 금방 소란스러워졌으며 검진을 격하게 거부하거나 수서가 꼬이는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그중 신장, 체중을 측정하는 곳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장애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얼굴 붉히지 않고 장애인의 눈높이의 맞춰 검진을 진행했다. 어느 순간 길었던 줄은 줄고 줄어, 77명 전원이 검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장애인 건강검진, 낮은 수검률과 높은 유질환율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020~2021년 장애인 건강검진 실태보고서'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전국 256만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수검률 67.8%보다 9.9%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증장애인 수검률은 이보다 심각한데 46.1%로 비장애인과 21.7%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

수검률의 차이는 유질환율 차이로 이어진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유질환율은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2022년 발표된 '2019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정상 판정률은 45.2%를 기록했으나, 장애인 정상 판정률은 21.5%였다. 장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워 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늦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낮은 취업률에 있다.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률은 34.9%로 비장애인(60.9%)에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다. 낮은 취업률은 낮은 수검률로 연결된다.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노동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지만, 비취업 장애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은 장애인 건강검진 전문 시설의 부재다. 장애인 검진에는 많은 인력과 전문화 장비가 필요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다. 위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장애친화검진기관'이라 부른다. 장애인친화검진기관은 서울 2곳, 경기 1곳, 인천 1곳, 부산 2곳, 강원 1곳, 경북 2곳, 경남 1곳, 제주 1곳뿐이다. 전라도에는 지정된 기관이 있으나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